

7/8/18

설교 제목: 패망을 불러온 북 이스라엘의 거짓된 행동과 이중적인 믿음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7 장 1-16

- (호 7: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 지어 노략질하며
- (호 7:2)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 (호 7:3)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 (호 7:4)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궜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 (호 7:5)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절관주** 합 2:15
- (호 7:6)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 (호 7:7)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 (호 7:8)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 (호 7:9)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 (호 7:10)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절관주** 시 10:4, 롬 3:11
- (호 7:11)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 (호 7:12)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러 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절관주** 신 28:15
- (호 7:13)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 (호 7:14)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 (호 7:15)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 (호 7:16)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얹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선지자의 북 이스라엘을 향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고자 했으나 그들의 계속된 거짓된 행동과 이중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패망시켜 버릴 수 밖에 없다고 하시며 북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포하십니다.

- (호 7: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 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하시지만 그들에게서 죄와 악이 드러났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의 죄'는 북 이스라엘 전체의 죄, '사마리아의 악'은 사마리아에 살던 지도자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기에 지도자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북 이스라엘이 백성이나 지도자나 모두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했다는 것입니다.

- (호 7:2)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모르거나 잊어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 (호 7:3)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이 악과 거짓말로 남의 것을 빼앗아 치부하고 왕과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가져다 주어 아침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네 가지 비유로 북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을 지적하십니다.

1.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을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궜진 화덕에 비유합니다.

(호 7:4)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궜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덕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전병을 만들고자 하면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는 화덕 불을 낮추어 놓았다가 반죽이 발효되어 구울 때가 되면 불을 세게하여 화덕을 달궜습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달궜진 화덕에 비유하는 것은 북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평시에는 조용히 웅크리고 있어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가 오면 것은 달궜진 화덕 같이 타오르는 악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 7:5)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날 즉 왕이 즉위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엄숙한 맹세와 감사를 드리고 자신과 국가의 앞날을 의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왕은 신하들과 술에 만취되어 갖은 추태를 보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만한 자들과 뇌물로 결탁했습니다.

(호 7:6)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북 이스라엘의 마음이 간교하여 화덕 같다는 것입니다.

화덕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불을 낮추어 놓아 겉으로 보기에 무시무시한 화력이 잠재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북 이스라엘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간음, 거짓과 술수, 욕망과 야망의 불덩어리를 품고 있으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중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악과 거짓말로 아첨을 하면서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분노의 불이 되어 삼키고 죽여버리는 이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 세 부터 BC 722 년 호세아 왕을 끝으로 멸망하기까지 20 년 동안 네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왕이 6 명이나 바뀌었습니다.

또한 6 명의 왕들 중 4 명의 왕들이 재임 중에 모두 살해를 당했습니다.

스가랴 왕은 재임 6 개월 만에, 살롬 왕은 재임 1 개월 만에, 브가히야 왕은 재임 1 년 만에, 베가 왕은 재임 3 년 만에 모두 암살 당했습니다.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죽은 자는 므나헴 왕뿐이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났고 암살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들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왕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갔느냐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왕들은 하나같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암살한 것이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 시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첨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때가 오면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간교한 화덕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간교한 화덕이 자리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뜻대로 주무르고 통치하기 위해서 불타오르는 간교한 화덕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한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감추어진 것은 아닌지요?

겉으로는 아첨을 하지만 속으로는 기회가 오면 삼켜버릴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화덕은 겉으로는 열정의 불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욕망의 불꽃입니다.

상한 감정과 분노와 욕망으로 가득한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그 화덕은 속이는 화덕입니다.

우리는 간교한 화덕이 아니고 성령의 불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만이 분노와 복수와 욕망의 화덕을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 7:7)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북 이스라엘이 분노와 복수와 욕망의 불로 뜨거워져 재판장들도 왕들도 다 엎어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까지 위급하게 되었음에도 그들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사람을 찾아가 의지했습니다.

2.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 의지하는 북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합니다.

(호 7:8)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발라 반죽하여 철판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입니다.

첫 곡식을 빵아서 하나님께 헌신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한쪽은 불에 타고 다른 쪽은 설익어 안과 밖이 다른 전병을 말합니다.

북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그들의 믿음은 순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변 이방 민족의 풍습과 신들을 마구 받아들여 하나님과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과 그들의 신을 혼합하여 섬긴 북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은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호 7:9)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어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는 원로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동화되어 삽니다.

원로이면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과 바른 지혜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 북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호 7:10)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호 7:11)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위험이 닥쳤음을 알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필사적으로 길을 찾는데 어리석게도 방향을 잘못 잡고 허우적대는 비둘기를 뜻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바로 그 꼴이라는 말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서 벗어나고자 머리를 짜낸 방책이란 것이 겨우 자신들을 430 년간 종으로 부리던 애굽을 찾아가 의뢰한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부르짖어야 하는데 엉뚱한 길로 간 것입니다.

결국 애굽은 북 이스라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고 마침내 북 이스라엘은 BC 722 년 앗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당장은 지혜로와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다고 다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부르짖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호 7:12)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러 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 당신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애굽을 찾아간 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앗수르라는 그물에 잡히어 포로가 될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호 7:13)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호 7:14)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구원해 주려하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북 이스라엘에게 패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인생의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슬퍼하기만 하고 물질이 생기는 것이라면 어느 곳이나 마다하지 아니하고 몰려갔습니다.

심지어는 농사를 풍년이 되게 해 준다고 믿던 바알 신을 따르는 일에 조차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호 7:15)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란 말은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성해지자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4.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을 속이는 활에 비유합니다.

(호 7:16)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얹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라간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심 힘으로 강해지자 교만하여져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죄는 화살이 과녁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야하는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는 말은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당할 때에 동맹을 맺었던 애굽이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같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라도 우리가 북 이스라엘과 같이 계속적으로 외식적인 삶, 거짓된 삶, 이중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멸망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이고 거짓된 이중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